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8℃ 목포 2/7℃ 여수 4/9℃

단기 4342년 (음력 10월 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25호 1판 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전 세종시 이전설 "경악"

정부, 나주 혁신도시 올 핵심기업 빼돌리나

'기업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세종시 밑그림에 따라 정치권에서 나주 혁신도시 이전 대상 중추 공기업인 KEPCO(한국전력)의 세종시 이전설이 나오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일각에서 세종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업을 재조정하는 등 기틀을 일부 흔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미 통합절차를 거치고도 본사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의 본사 이전지 결정과 맞물려 한전처럼 이전으로 인한 파급력이 큰 기업의 본사 이전지에 대한 재검토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경우 이미 나주혁신도시로 본사 이전 절차가 진행중이고, 세종시로 이전될 경우 광주·전남지역사회는 물론 전체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실제 세종시로의 이전이 입안될 경우 대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출범과 함께 민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조만간 세종시 이전 기업의 구체적인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17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만찬 회동을 통해 세종시에 어떤 기업들을 보낼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새 정부들어 나주혁신도시 뿐만아니라 전국 혁신도시로 배치될 공기업들이 차라리 세종시로 보내달라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시가 산업도시로 규정된다면 전국의 혁신도시는 사실상 빈 껍데기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최근 나주 혁신도시 개발 현장을 방문해 ▲한전 사옥 부지 축소 ▲조성원가 인하 ▲부지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감면 등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단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을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토지주택공사 보내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흰옷 입은 무등산 16일 광주 무등산 누에봉을 비롯한 정상 부근에 눈이 내려 장관을 이루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당분간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19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하늘길 싸움' 시·도 충돌

전남도,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촉구 나서자

박광태 시장 "광주공항 국제선까지 재유치"

지역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개되던 광주공항·무안공항 갈등이 광주시와 전남도로 확산하면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소모전으로 비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5일 전남도가 무안공항으로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데 맞서 곧바로 박광태 광주시장이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두 공항 문제가 시·도간 새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광주공항 국내선은 산업 측면에서 반드시 존치돼야 하며, 무안공항으로 이전된 국제선 노선의 전세기 취항 인가까지 요청할 것"이라며 광주공항 국내선의 이전의사가 없음을 공식화 했다.

박 시장은 특히 "오는 2014년 KTX가 완전 개통되더라도 광주공항 국내선은 필요하다"고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무안공항의 국제선은 전멸했다"면서 "광주공항 국내선도 무안공항으로 가면 국내선도 망할 것"이라고 무안공항에 대해 직격탄을 쏟아냈다.

그는 이어 "국제선이 옮겨간 뒤로 흑자공항이던 광주공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광주공항과 베이징, 상하이를 오가는 전세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인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전남도도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 광주시 등에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그동안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문제의 경우 광주시의 공식 입장이 KTX 개통 이후 논의였던 만큼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광주지역 일부 관광단체의 국제선 재취항 추진과 국토해양부의 양 지역 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태도를 공세적으로 바꿨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99개대 15만8,625명 선발

정시모집 요강 발표…광주·전남 1만1천여명

2010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전국 199개 대학이 총 15만8천6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전형은 대학별로 내년 2월1일까지 이뤄진다. 〈관련기사 6·8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올해 정시 모집인원은 총 15만8천625명으로 지난해(16만6천570명)보다 7천945명 줄었다. 올해 수시와 정시를 합친 전체 모집인원 38만4천659명 중 정시모집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41.2%로, 지난해(47.9%)보다 6.7% 포인트 줄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 2천133명, 조선대 1천769명, 목포대 783명, 순천대 889명, 광주교대 438명, 호남대 622명, 동신대 520명, 광주대 498명, 광주여대 128명 등 1만1천여명이다.

이번 정시모집의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43개 대학 6만432명, 나군이 147개 대학 5만9천434명, 다군이 146개 대학 3만8천759명이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199개 대학이 14만5천42명을, 특별전형으로 162개 대학이 1만3천583명을 뽑는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고사 등이 주요 전형요소이며, 모집단위에 따라서는 적성검사나 실기고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볼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성미 마침내 첫승

'천만달러의 소녀' 장흥 출신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미국 여자프로골프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맥주 세례를 받으며 첫 우승의 기쁨에 흠뻑 취했다. 〈관련기사 18면〉

위성미는 16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적어내며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 그토록 바라던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다. 팽팽한 접전을 펼치던 폴라 크리머(미국·11언더파 277타)를 2위로 따돌리고 차지한 감격의 우승이었다.

신지애 상금왕 확정

'골프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LPGA 투어 2009시즌 상금왕에 올랐다. 16일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3위에 오른 신지애는 상금 6만5천936달러를 받았다. 시즌 상금을 177만5천104달러로 끌어올린 신지애는 2위 크리스티 커(미국)의 149만5천812달러를 28만달러 가까이 앞섰다.

시즌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에서 커가 우승 상금 22만5천 달러를 차지해도 신지애를 따라잡을 수 없어 신지애의 상금왕이 이날 확정된 것이다.

김연아 7회연속 우승

'피겨여신' 김연아(19·고려대)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 7회 연속 우승과 함께 네 시즌 연속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련기사 18면〉

김연아는 16일 오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1980링크에서 치러진 2009-2010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1.70점을 기록, 전날 쇼트프로그램(76.28점) 점수를 합쳐 총점 187.98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 레이철 플랫(미국.174.91점)에 13.07점 앞선 완승이었다 /연합뉴스